

건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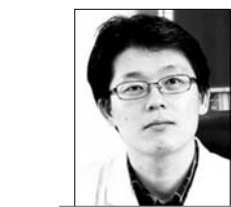
풍수해 감염병과 예방 수칙

풍수해 감염병이란?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변화 및 위생 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주요 발생 감염병으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접촉성 피부염·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감염병 등이 있다.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물이 닿거나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설사·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시 조리하지 않



김이은
구암한의원장

기 등을 지켜야 한다. △ 모기매개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는 모기 활동시간인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야외활동 자제하기, 밝은 색 긴팔·긴바지 착용하기,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살충제 사용하기,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고 2년 이내에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 받기 등이 있다.

△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은 주로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이다. 예방 수칙으로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고무장갑 착용하기,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 내기,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중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하기,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시 파상풍 예방 접종하기 등이 있다.

주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바른 손씻기를 하며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안과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증은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 즉 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에 노출돼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침수 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 내고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안과 감염병 안과 감염병은 유행성 눈병이 있다.

주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바른 손씻기를 하며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안과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사설

경찰 통제안 문제

경찰 통제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관심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들에게로 쏠리고 있다. 경찰은 통제안에 대해 한결같이 입장 표명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사법직까지 진행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장이 일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초대 청장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사이다.

어느 언론사가 신임 청장 후보들에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후보들은 입을 맞춘 듯 한창 논의 중인 만큼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과 관련된 최대 현안인데도 원론적인 의견마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과는 온도 차가 분명하다. 경찰관들은 경찰청 앞에서 사

발식을 벌이거나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통제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휘부에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 독립된 경찰감시 기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를 비롯한 지도부에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청 직감협의회는 "관서별로 또는 시도별로 열심히 경찰조직을 살리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찰청장은 전일 청장의 사의가 헛되지 않게 행안부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 경찰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통제 움직임과 이에 반발하는 내부 저항 사이에서 협력이 예상된다. 건 분명해 보인다.

전주 매춘가의 화려한 변신

전주시 서노송동 홍등가(紅燈街) '선미촌'이 새로운 변신을 했다. 선미촌은 왕복 6차선인 기린대로를 사이에 두고 전주 시청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전주 한옥마을과는 불과 800m 거리에 있다. 대규모 사창가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 "전주 이미지를 망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은 전주의 대표적인 성매매 업소 이른바 참너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마지막 성매매 업소가 문을 닫은 요즘 선미촌에서는 동네 책방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청년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동네 책방 '불결서사'에서 시집 등을 사고 나오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부쩍 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성매매 업소 85곳이 불야성을 이루던 '홍등가(紅燈街)' 선미촌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1950년대 옛 전주역 주변에 형성된 선미촌은 2004년 성매

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규모가 줄었다.

전주시는 2014년부터 선미촌 일대(2만2760㎡)를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는 2017~2020년 국비·시비 등 83억 원을 들여 빈집과 성매매 업소를 사들였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경등전주', 생활용센터 '나시봄', 전시장 겸 공연장 '뜻밖의미술관' 등 거점 공간 7곳을 만들었다.

성매매 업소는 2014년 12월 49곳→2018년 12월 21곳→2020년 12월 10곳→2021년 6월 3곳으로 줄었다. 선미촌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건물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을 활성화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조문 위해 도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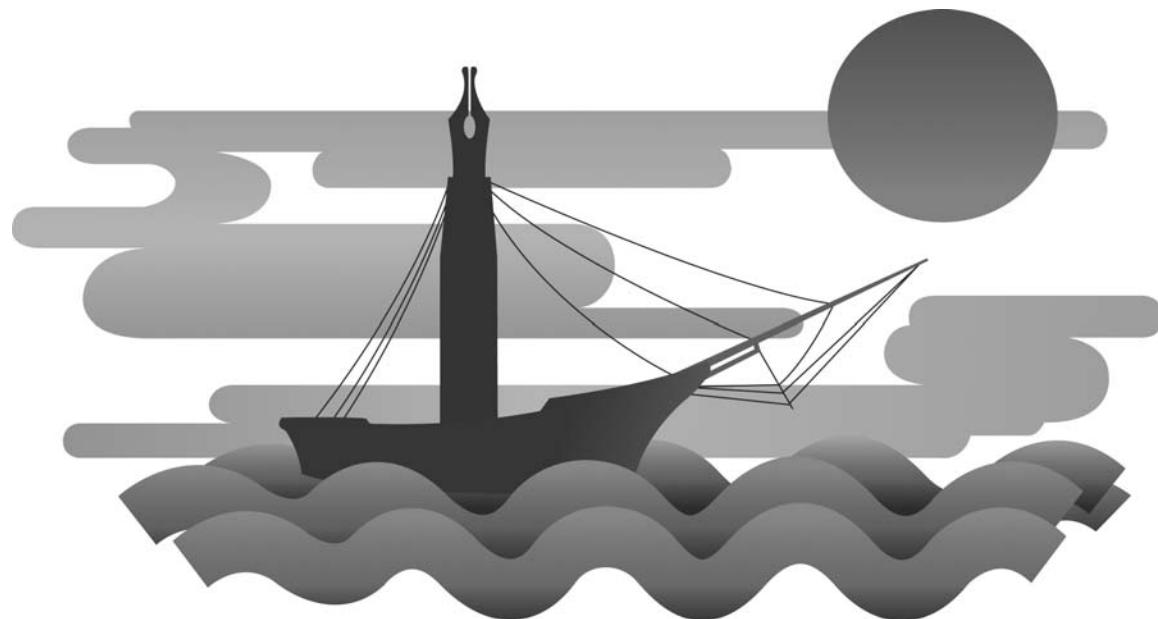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토니 블링컨(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11일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조문 차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총기규제 외치는 록 초등학교 희생자 가족들



1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유밸리에서 록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희생자 가족과 친지들이 총기 규제 촉구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록초등학교에서 18세 고등학생의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숨졌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